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재능나눔...농업가치 제고  
대학생 봉사활동 캠프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학생들에게 농촌재능나눔 기회 제공은 물론 농업·농촌의 가치 제고를 위한 '2017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봉사활동 캠프'를 개최했다.

\* 일시·장소 : 7.4(화)~7(금), 충북 옥천군 청성면 한두레권역

이번 캠프는 2017년도 '농촌재능나눔 대학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15개 대학 동아리 학생들이 참가하며, 각 분야의 다양한 전공과 개인의 재능을 농촌에 기부하는 형태로 종전 농촌봉사활동을 한 단계 발전시켜 농촌에 필요한 지식·경험·기술을 보태는 "농촌재능나눔"을 확산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봉사활동 캠프"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충북 옥천군의 5개 마을에서 집 고쳐주기, 마을 벽화그리기, 마을환경개선 등 주거환경 개선, 마을 주민 마사지, 한방 및 물리치료 등 건강·복지증진, 건강예방·바른 식생활 교육 등 마을주민 교육활동, 농촌일손돕기 등 다양한 분야의 재능이 펼쳐졌다.

또한 마을주민과 함께하는 농촌영화제, 마을음악회, 참여 대학 동아리간 네트워크 구성 등 감성프로그램도 운영하여 농촌주민과 어우러져 소통하고 친밀감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농촌은 전체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농가인구 비율이 40%를 넘어섰을 만큼 고령화 되어있고, 복지, 문화, 기술, 교육 등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으로 많은 사람들의 재능 기부가 필요로 된다. 농식품부 이재욱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사업은 전문가가 부족한 농촌지역에 각 분야 재능인들의 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도시민은 농촌에 대한 이해와 봉사에 따른 보람을 찾고, 농촌주민은 공동체 활력과 삶의 질 제고를 체감하게 하는 데 의의가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사랑 사진공모전 개최  
15개작품 선정 9월 8일 당선작 발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과 사람의 조화로운 One-Health, One-Welfare"를 주제로 제10회 동물사랑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7월 31일까지 접수된 작품

품을 심사해 15개 작품을 선정 9월 8일 당선작을 발표한다.

선정된 작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대상)을 포함한 상장과 상금이 지급되며, 동물보호관련 홍보자료로 활용된다.

\* 시상내역 :

- 대상(1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상장 및 상금(200만원),
- 최우수상(1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상장 및 상금(100만원),
- 우수상(3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상장 및 상금(30만원),
- 장려상(10인) 상금(10만원)

선정 기준은 반려동물농장동물을 포함한 동물을 대상으로 사람과 동물의 아름다운 공존과 동물보호 정신의 표현이다. 참여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방문하여 손쉽게 응모를 할 수 있다.

문운경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사람과 동물의 아름다운 공존을 구현한 작품이라면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우리사회의 구성원이 된 반려동물과 우리가 부득이하게 이용하는 농장동물, 실험동물 등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년 하반기 식·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관리 강화하고 소비자 알권리는 확대하며 절차적 규제는 합리화 하는 방향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식품 분야는 ▲부적합 수입수산물 중점관리(7월)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예측시스템 구축(7월) ▲건강기능식품 표시할자 크기 확대(7월) ▲영업자 준수사항 등 알람서비스 제공(11월)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 확대(12월) 등이 시행된다.

의료제품 분야는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 본격 시행(7월) ▲일반의약품 외부포장 표시정보 읽기 쉽게 개선(12월) ▲위해도가 높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12월) 등이 시행된다.

식약처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적극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농촌진흥청

집중호우 대응한 농작물·시설물 안전관리 요령 소개

농촌진흥청은 올해 여름철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지만 지역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농작물, 가축, 시설물 안전관리를 적극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축산]

축사 주변의 배수로를 정비하고, 축사 내 전기시설을 살펴 감전 사고를 예방한다. 가축의 먹이는 비에 젖어 상하지 않도록 가능한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축사가 침수됐을 때에는 가축을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옮기고, 먹이를 줄 때는 사료의 변질 여부를 확인해 먹이로 인한 질병을 예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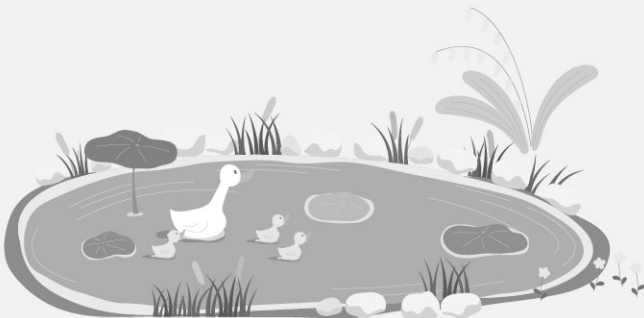
#### [농기계]

농기계는 흙이나 먼지 등을 없앤 다음 기름칠을 하고 바람이 잘 통하고 비를 맞지 않는 곳에 덮개를 씌워 보관한다. 각종 클러치나 벨트는 풀림 상태로 둔다.

물에 잠긴 농기계는 절대로 시동을 먼저 걸지 말고 안전한 장소로 옮겨서 물을 완전히 빼내고, 깨끗한 물로 닦아 오물을 없애고, 물기가 마른 다음 기름칠을 한다.

#### [시설물]

비닐하우스는 미리 주변의 배수로를 살펴 습해를 예방한다. 호우가 끝난 뒤 침·관수된 하우스는 주변 배수로를 신속히 정비해 물을 뺀다. 비닐하우스 내 농작물과 기자재는 깨끗한 물로 씻어주고 약제 방제를 실시한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정준용 과장은 “여름철에는 기상정보에 관심을 갖고 집중호우가 예보되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비가 그치면 물을 빼고 병해충 방제 활동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 공모  
해마다 40명 선발 · 사업비 지원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은 농촌인구 고령화, 청년실업 증가 등의 어려움 속에서 농촌의 활력과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8월까지 청년농업인들의 창의적 착상을 선발해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 공모를 한다고 밝혔다.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은 농업경영체를 운영하고 있는 젊은 농업인이 새로운 농업기술이나 ICT기술 등을 농촌현장에 접목해 성공모델을 마련함으로써 후계농업인들의 도전 정신을 장려하는 사업이다. 해마다 4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해 1인당 4,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은 거주지 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7월 중에 공고할 계획으로 시·군에 따라 신청기간이 다른 사업대상 청년농업인 선발 절차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1차 선발을 거쳐 도 농업기술원에 대상자를 추천하면, 각 도 농업기술원에서 서면심사와 발표심을 통해 최종 선발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농업인에게는 4,5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도와 줄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박경숙 지도정책과장은 "공모에 최종 선정된 청년 농업인 1인을 중심으로 사업추진 시기별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면서 모든 영농과정에 기술·경영 전문가가 후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대상 선정기준 발표  
선정위 개최...시설 가점부문 결정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17년도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선정 기준을 6월 29일 확정·발표했다.

축평원은 이에 앞서 6월 27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축종별 선정 기준과 새롭게 추가된 가점 부문 등을 결정했다.

선정기준은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중 건강과 안전에 대한 소비자 욕구와 한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용을 적극 반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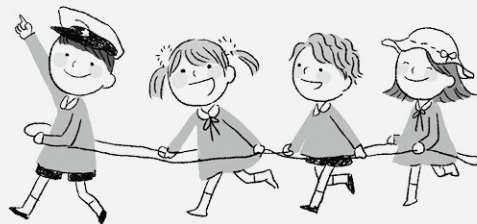
주요 내용은 한우의 경우 지난 1년간 30마리 이상을 출하하고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이 70% 이상인 농가, 육우는 30마리 이상을 출하하고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이 20% 이상인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가점 부분에서는 한우 사육기간 단축을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사육개월령에 대한 가점이 강화됐다.

또한 농림사업시행지침 등 축산시책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한 가점도 신설됐다.

생산자조직 가입, 재해보험 가입 여부 등 축산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농가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올해 15회를 맞는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시상식은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등 총 34점이 수여되며, 오는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노사 상생·협력 '단체협약' 체결  
신뢰바탕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노사가 한자리에 앉아 상생과 협력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공동교섭대표단인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지부, (재)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노조는 7월 12일 충북 오송에 위치하고 있는 HACCP인증원 본원에서 노사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사양측은 기관 통합이후 3월부터 본교섭 7회와 실무교섭 7회 등 총 14회에 걸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하고 105개 조항(본조항 : 99개, 부칙 : 6개)에 최종 합의한 뒤 서명했다.

체결된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근로시간 면제자는 법정한도내로 운영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여성 육아휴직 3년 적용 등이다.

단체교섭 초기단계에는 노사간 입장차이로 일부 어려움이 있었으나, 수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신뢰의 단초를 만들었다. 노사상생의 공감대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단체교섭 진행에도 가속도가 붙어 약 4개월간의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최종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HACCP인증원 관계자는 “단체협약을 통해 노사 양측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한 식탁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출발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축산환경관리원

무허가축사 적법화 ‘박차’  
축산농가 컨설팅 지원

축산환경관리원은 내년 3월 24일 적법화 시한을 9개월 남은 시점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관리원은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150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중앙상담반 현장 지원반에 참여, 대상 시·군별로 2~3일간 현장에서 축산농가 컨설팅을 진행키로 했다.

또한 종전과 같이 각 지자체 및 축산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유·무선 상담 및 현장컨설팅을 지원한다.

특히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해소방안을 마련,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관리원은 올 들어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반장을 전형률 사무국장으로 격상시켰고, 농식품부 중앙상담반 및 환경부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회의에 참석했다. 이어 경남 등 지자체 교육 실시 및 안성시 등 현장 컨설팅 실시, 약 360건의 상담 업무 등도 지속 추진해 왔다. 관리원은 그간 유선·인터넷 상담 등을 통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상담 사례집(1만부)’과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사례집(2,600부)’을 축산현장에 보급했다.

이와 함께 2015년 11월부터 현재까지 56개 시·군 축산농가, 공무원, 축산단체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6,400여명을 교육했고, 인터넷 상담 117건을 포함해 총 1,620건을 상담했다.

전형률 관리원 사무국장은 “내년 3월까지 9개월여 남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지원해 축산농가에 불이익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